유기자원의 무기화량에 의한 질소 공급량 추정 Estimation of Potentially mineralizable nitrogen of organic materials

¹이상민*, ²신재훈, ¹이연, ¹윤홍배, ³정만철, ¹오진성, ¹김현숙, ⁴김계훈 Sang-Min Lee*, J. H. Shin, Y. Lee, H. B. Yun, M. C. Jung, K. H Kim, J. S. Oh, H. S. Kim ¹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

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, RDA, Suwon, ²농촌진흥청

Rural Development Adminstration, Suwon ³농업기술실용화재단

The Foundation of Ag. Tech. Commercialization and Transfer, RDA, Suwon

⁴서울시립대학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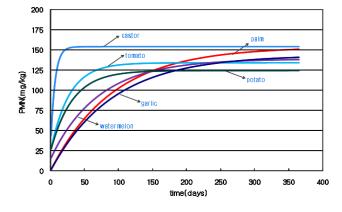
University of Seoul, Cheonnong-dong, Seoul

유기농업에서 유기자원을 이용하여 적정량의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자원의 무기화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 토성, 기온, 재배형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면서 무기화모델을 이용하여 유기농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기질비료와 작물잔사 등을 대상으로 잠재 무기화가능 질소량(PMN, Potentially mineralizabe nitrogen)을 추정하였다. 실험은 실내에서 항온 배양하여 유기자원별 질소 무기화 양상을 분 석함으로서 대상 유기자원의 PMN 및 무기화 속도를 도출하였다. 실험재료는 팜박, 피마자박, 팽화왕겨, 토마토, 수박, 감자, 마늘 등 7종을 대상으로 20℃, 25℃, 30℃ 조건에서 하였으며, 최대수분보유량의 60% 수준으로 하여 사양토 및 식양토 조건에서 실험하였다. 유기자원은 토양 100g에 질소 30kg/10a 해당량을 시용하여 112일까지 항온하였다. 토성별 무기화량은 식양토 보다 사양토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. 또 한 항온온도가 높을수록 무기화량이 증가하였다. 유기자원별로는 피마자박에서 높았고, 팽화왕겨는 낮은 경향이었다. 유기자원이 처리된 것에서 토양 자체의 무기화량을 뺀 순무기화량은 피마자박, 토마토잔사, 감 자잔사가 항온초기부터 무기화가 진행되었으며, 수박잔사, 마늘잔사는 항온 초기에 음의 값을 가지는 유기 화 과정을 거친 후 항온 60일에서 80일 사이에서 무기화가 진행되었고 팽화왕겨의 경우 항온 112일까지 유기화가 계속되었다. PMN 및 무기화속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반응속도식을 이용하였으며, 모델의 적합도 를 높이기 위하여 이중지수모형을 이용하여 매개변수를 결정하고 무기화경향을 예측한 결과 PMN은 피마 자박>마늘잔사=팜박>수박잔사=토마토잔사>감자잔사의 순이었다. 또한 유기자원의 무기화량과 C/N율과는 부의 상관관계(r²=0.8653)를 나타내었다. 요소의 PMN(135.6mg/kg)에 대한 유기자원별 PMN의 상대적 비 율은 피마자박이 100%, 팜박과 마늘잔사가 81%, 토마토, 수박 및 감자잔사가 28~65% 수준이었다.

주제어: 양분관리, 질소무기화, 유기자원

연구자 연락처: sminlee@rda.go.kr 031-290-0546

O Estimation value of PMN and relative mineralization rate of organic materials



Relative mineralization rate(%)*
81
100
63
65
58
81

* Relative mineralization rate of organic materials compared with PMN(135.6mg kg⁻¹) of urea